

2023-2 csee 특강 (2023.10.11 수)

22100579 이진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빌딩

메트로랩 신소봉 CEO

오늘은 우리 학교의 동문이신 메트로랩의 신소봉 대표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다. 강의의 시작은 흐름의 중요성이었다. 창업이란 흐름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타는 것이며, 이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공의 확률을 30% 증가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5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주 흐름이 바로 컴퓨터이다. 컴퓨터의 첫 등장부터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기까지, 이 흐름은 주변으로 흡수되며 다른 분야들에 가히 격변을 일으키는 촉진제가 되어왔다. 오늘날 크게 성공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이러한 융합 분야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피스 네트워크의 마이크로 소프트, 스마트폰과 위치로는 애플, 자동차 네트워크와 자율주행을 이끄는 테슬라, 전자 상거래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아마존 등이 그 예시이다. 대표님이 내다보신 그 다음의 흐름은 바로 지능형 홈 네트워크였다. 컴퓨터 공학에서는 IoT라고 불리는 분야와 연관된 그것이다. 이 분석에 기반하여 시작된 대표님의 창업은 메트로랩, 스마트 빌딩에 대한 것이다.

흐름의 성공적인 계승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의 아이템들은 모두 기존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점차 후자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음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다. 타이핑 기계에서 컴퓨터로,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주행을 위한 자동차에서 스마트 자동차로 변해가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공통적인 지점은 이렇듯 새로운 컴퓨터 기반의 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해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옛날의 근본 기능을 위해 존재하던 인터페이스, UI 등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는 필요 없을지라도 이미 인간에게 익숙하고 습관이 된 것이 많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핸들은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에 기반한다. 마지막으로 폭발적 확산의 필요 조건은 해당 아이템이 돈을 벌해주거나, 효율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낮추어 끝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스마트홈 시장이 아직 협소한 이유와도 연관된다. 기존의 아이템들처럼 빠르고 넓게 퍼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편안함보다는 돈이 주요한 쟁점이 되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후 Killer Application이 나온다면 판도는 달라질 것이며, 그 후보로는 AI, 탄소중립 등이 있다.

나는 강연을 들으며 스마트홈 시장과 IoT 기술에 대해 빛나는 가능성을 엿본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두 키워드 모두 옛날부터 어디선가 들어왔으나 삶에서 체감하지는 못했던 것들이었다. 거의 개인의 분신과도 같아진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가는 자율주행 열풍에 비하면 시들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이론에 따르면, 돈과 연관된 혁신은 열풍으로 번진다. 이 대목에서 나는 변화해가는 현대의 가정 구조를 떠올렸다. 이전의 가부장제처럼 집안일을 전담

하는 역할군이 더는 보편적이지 않은 사회이다. 맞벌이와 반반 집안일, 반반 육아... 남편과 아내 모두 지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갖추어진다면 어떨까? 이는 단순히 부가적인 '편안함'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부족함, 삶의 결핍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편의는 이제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어서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당장 내가 취업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에도, 집안 일과 잘 병행할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까지 생긴다면? 부담은 배가 될 것이다. 아이를 이유로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 해도 이전보다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며... 그저 딜레마와 고통이다. 비용을 들여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대인의 에너지 절약, 정서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며 이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삶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흥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나는 그 자리가 스마트홈과 스마트 빌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 이번 학기에 IoT 수업을 듣고 있다. AI에 의해 대체될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하신다는 대표님의 질의응답도 기억에 남았다. 진로를 고민하는 지금 시기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다양한 방면으로 열심히 공부해보자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